

# 성직자 길 접고 연예계 입문한 만능 엔터테이너

주영훈은 저작권협회에 440곡 이상이 등재된 국내 최정상급 작곡가 겸 프로듀서다. 서울 청담초 재학 시절 연예계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의 강력한 지지로 1978년 황순원 원작 영화 '소나기' 아역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이후 영화 '저 파도 위에 보이는 엄마 얼굴', 드라마 '영이의 일기' '일곱 색깔 무지개' 등에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반대로 배우 활동을 접고 신학대에 진학하고자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에 매진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성직자는 자신이 원하던 길이 아니었다. 목사의 길을 뒤로하고 음악에 관심을 가지면서 아르바이트를 해 모은 돈으로 드림을 샀다. 화가 난 아버지는 주영훈이 드림을 산 지 하루 만에 망가뜨리는 상황도 있었다.

합납함을 곳곳이 헤치고 나아가 1993년



심신의 '내가 처음 사랑했던 그녀'를 작곡하며 작곡가로 데뷔했다. 엄정화-터보-성진우-김종국-김현정-코요태 등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히트곡 제조기'로 명성을 떨쳤다. 특히 엄정화의 '페스티벌' '배반의 장미' 등은 지금까지도 리메이크되는 그의 대표곡이다.

1997년에는 '젊은 날의 초상'이라는 곡

을 타이틀로 내세워 솔로 1집을 발표하고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2000년 발매한 '노을의 연가'는 드라마 '거짓말'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삽입곡으로 1997년 대학가요제에서 전선민이 부른 뒤 주영훈이 이어 부르면서 그의 이름이 더욱 알려졌다. 이 곡은 가요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작곡가 겸 가수로 인기를 얻던 1990년대 중반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고정 게스트를 맡아 예능에도 발을 들였다. 화려한 입담으로 인기를 넓히다 1990년대 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에 더 유명해졌다.

SBS '좋은 친구들', MBC '오! 해피데이' 등에서 활약했고 종합편성 채널 개국 후엔 JTBC 형사 토크 버라이어티쇼 '당신을 구하는 TV, 우리는 형사다'를 비롯해 MBN '아궁이', TV조선 '엄마의 봄날', 채널A '아빠본색' 등에 출연했다.

지난해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두 편에서 날카로운 심사평을 해 눈길을 끌었다. TV조선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심사위원인 마스터로, '오빠시대'에서는 오빠지기로 나섰다.

결혼 소식도 화제였다. 1969년 생인 주영훈과 1981년 생인 이윤미의 12살 피동갑 나이 차를 극복한 커플로 주목받았다.

2004년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 코너 '대단한 도전'에 출연한 배우 이윤미와 인연을 쌓아온 뒤 2006년 화촉을 밝혔다. 이윤미는 2002년 KBS 예능 '산장미팅-장미의 전쟁'으로 데뷔해 드라마 '작은아씨들' '내 이름은 김삼순' '마이 리브' '나쁜여자 착한여자' '날아오르다' '드림하이'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주영훈-이윤미 부부는 슬하에 딸 아라-라엘-엘리 양을 두고 있으며 이따금씩 각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행 등 가족의 일상을 공개하며 행복함을 보여주



주영훈  
가수·작곡가

연합뉴스

고 있다.

주영훈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사진) 소재 B아파트 한 호실을 2019년 5월 아내와 공동명의로 29억 원에 매입해 소유 중이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293.06㎡(약 88.65평)·전용면적 244.76㎡(약 74.03평) 규모로 최근 거래는 2022년 1월 거래된 33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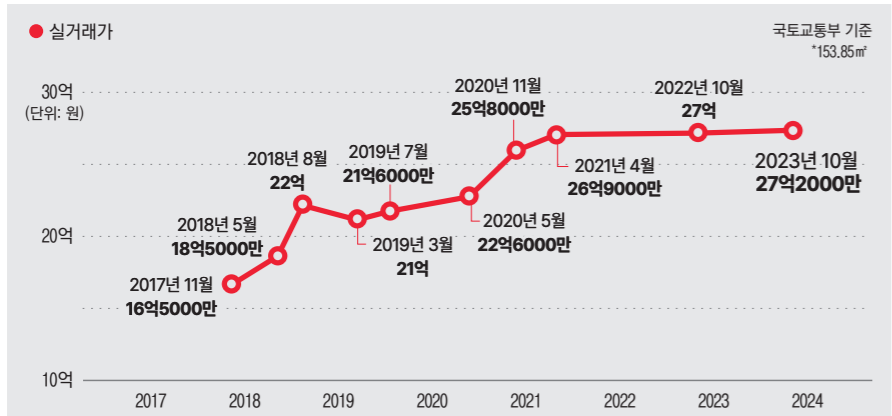
현재 65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으나 호

가로 근처 고급빌라 거래 내역과 비교하면 주영훈 소유 호실 시세는 50억 원대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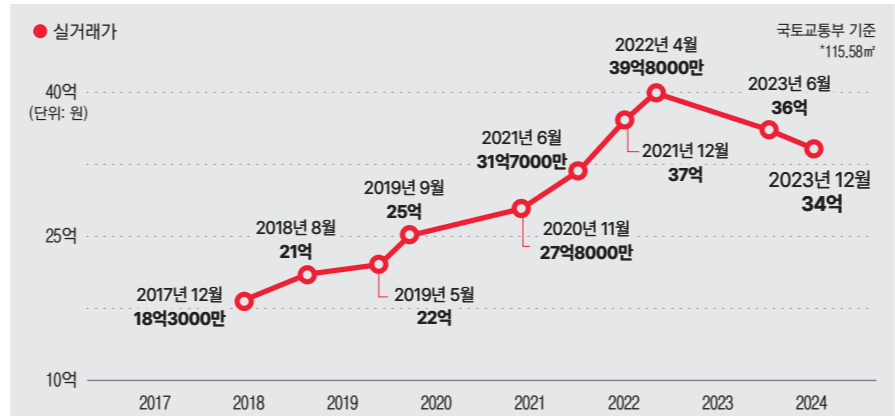
이 단지는 15층 한 동으로 구성됐으며 한 층에 한 가구만 들어가도록 설계해 보안이 철저하다. 한남대교 남단과 한강공원 잠원지구와 인접해 각 호실마다 압도적인 한강 뷰를 자랑한다.

이동원 기자dwi@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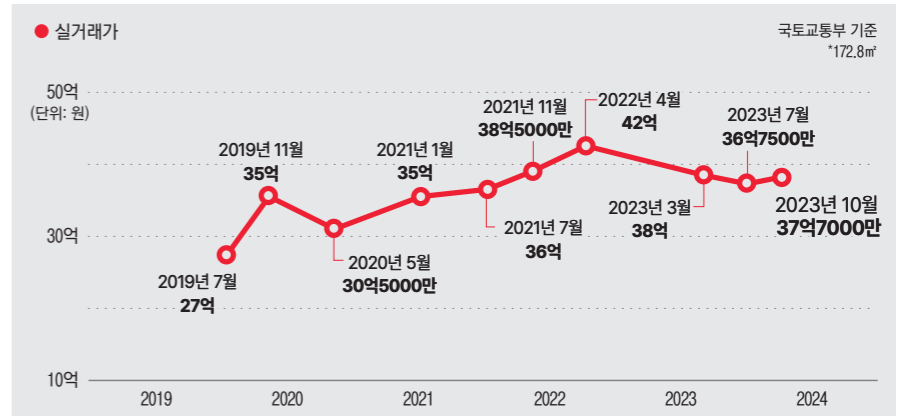
## 롯데캐슬갤럭시



## 신반포2차



## 래미안신반포리오센트



## 문정호

전·환경부 차관



문정호 전 환경부 차관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국무총리실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과장 승진과 함께 환경부로 자리를 옮겨 자연보전국장·환경정책실장·대기정책과장·수질정책과장·공보관·수질보전국장·나동강유역환경청장·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환경부 내에서 수질 전문가로 꼽힌 그는 4대강 특별법 제정 과정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기획 능력이 뛰어나고 정책 방향 설정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후 환경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환경보전안전 및 지속 가능성 리스크에 대한 솔루션

을 제안하는 컨설팅 회사 엘프스 대표에 취임했다. 그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해결 가능한 법률적·정책적·기술적 제안들을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추진전략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종학

현·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이사



박종학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서강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인사부·국제부 조사역, SEI에셋코리아자산운용 투자전략팀장·운용총괄담당 상무·운용총괄 전무(CIO)를 거쳐 2000년 베어링자산운용 한국법인(당시 SEI에셋코리아)에 입사해 2008년 7월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선임됐다. 이후 배인수 각자대표와 함께 각자대표를 지냈지만 회사가 2024년 1월 1일부터 단독대표 체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박 각자대표를 베어링자산운용 한국법인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박 대표는 "1800여 명의 전문

가로 구성된 글로벌 팀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으로 국내 비즈니스를 이끌고 변화하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양질의 투자 서비스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피호영

현·성신여자대 전임교수



피호영은 13세에 서울시향과 파가니니 협주곡을 협연해 주목받았다. 세계적인 명문학교인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합격한 후 3년 만에 심사위원 만장일치의 1등으로 졸업했다. 서울대 재학 시절 서울시향 수석으로 입단한 후 프랑스 국립장학생으로 6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코리언심포니 악장으로 부임해 10년을 함께 했다. 독주자로 나선 후에도 서울시향과 부천필 등 국내 우수 오케스트라의 객원악장으로 수없이 초청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2007년 강남역에서 벌인 길거리 연주가 폭발적인 관심을 끌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으며 '오페

라 아리아' '로망스' '봄' 등 독특한 레퍼토리와 데마가 있는 독주회로 신선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2004년 대한민국국악제 개막공연에서 KBS교향악단과 협연한 브람스 협주곡으로 호평받은 그는 성신여대 교수로서 1999년 '성신 트리오'를 창단해 활동함과 동시에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새로운 에너지 미래,  
**Go with KEA**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물과 어디서든 쉽게 충전하는 친환경 자동차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새로운 미래,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 일어 갑니다.